대한전문건설협회 토공사업협의회 신임 회장

이영재 청토산업(주) 회장

# "전문건설업체도 기업 브랜드를 창출하는 환경 만들 터"

"전문건설업체도 축적된 시공 기술 능력을 실적으로 인정받아 기업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 달 말 대한전문건설협회 토공사업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이영재 청토산업 회장은 건설산업이 진정한 기술 산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공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이 제대로 대우받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십 년 간 현장에서 건설 기술을 쌓아온 전문 업체도 제도의 미비로 그 실적을 인정받지 못해 기업 고유의 값어치를 형성해 나가지 못한다는 게 전문건설업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이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건설산업의 구조 및 생산 체계 개편 과정에 이러한 업계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협의회의 일의적 목표를 두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선진화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일반건설업은 CM, 즉 종합 관리를 수행하고, 시공 및 유지 보수 부문은 전문 업체가 맡는 체계로 개편되어야 만 건설산업의 기술 경쟁력이 제대로 길러질 수 있습니다."

이영재 회장이 주시하는 또 다른 문제는 바로 페이퍼 컴퍼니의 난립이다. 그는 현재 3만 2,000여 개에 달하는 전문건설업체 중 1년에 매출액 5억원을 올리지 못하는 업체 수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들 업체 중 상당수가 자격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페이퍼 컴퍼니라고 지적했다. 견실 시공과 기술 개발에는 관심조차 없는 이러한 업체들이 과도 경쟁을 유발시키는 한편 수주한 공사를 재하도급함으로써 업계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영재 회장은 이러한 페이퍼 컴퍼니를 퇴출시키기 위해서는 발주처가 하도급 업체의 직접 시공 유무를 철저히 감시하고, 자격 요건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등록 요건과 관련해 현재의 자본금 규모를 상향 조정하고 보유 기술자 수도 2명에서 5명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 설립 후 정해진 유예 기간을 준 뒤에 매년 일정 규모의 공사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안도 내비쳤다.

현재 25개 공종으로 나누어져 있는 면허 체계에 대한 지적도 날카로웠다. "건축 부문의 경우 현행 소재 위주의 공종 분류가 타당하지만 자연 상태를 가공하는 토목의 경우 공정 흐름상 목적물의 기능에 따라 분류해야 합니다. 즉, 도로, 항만, 상하수도 등처럼 분류하면 되지요. 도로 공사를 하기 위해 한 기업이 면허를 6 7개나 가져야 하는 것은 전문화에도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까요?"

이영재 회장은 30년 이상 토목 공사를 다루어 온 토목 기술인 출신이다. 태평양건설에서 대청댐 상수도 공사를 끝으로 퇴사한 후 1989년 청토산업을 설립해 짧은 기간 내에 회사를 토공사업계를 선도하는 알찬 기업으로 일구는 데 성공했다. 송충이가 솔잎만 먹듯 다른 분야에 한눈 팔지 않고 토목 공사에만 주력해 온 덕분이다.

그런 그이지만 딱 한 번의 외도가 있었다. 1994년 환경 사업에 뛰어든 것이다. 소형 쓰레기 소각로를 개발해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발명 특허를 냈다. 동경화학연구소에서 다이옥신까지 잡는 우수한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IMF라는 복병을 만나 사업을 접어야만 했다. 그러나, 아쉬움도 후회도 없다고 한다. 그 분야의 국내 기술이 업그레이드된 데 만족한다는 것이다. "소각로 외에 수십 억원을 들여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도 만들었습니다. 환경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설비들이었죠. 비록 상업화에는 실패했지만 직원들에게 나누어준 기술이 다른 데서 성공적으로 쓰이는 것을 볼 때면 커다란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이형우 · 기자 · hwlee@cerik.re.kr